

PUBLICATION

## 여성대중 소설이라는 빈자리

한미화 | 출판컬럼니스트

최근 주인공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담은 로맨스 소설 『내 이름은 김삼순』이 드라마로 제작되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으며 드라마가 떠야 소설이 뜨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몇몇 로맨스 소설이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판매에 성공했지만 과연 로맨스 소설이 자리 매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로맨스 소설의 선입관과 빈약한 작가 군으로 인해 함양미달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는 문제임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요일과 목요일 밤 10시가 가까워지면 여자들의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마법에 걸린 마차가 호박으로 변하고, 드레스가 누더기 옷으로 변하는 신데렐라도 아니면서 연신 시계를 들여다본다. “이제 그만 가 봐야겠는데요”라고 울상을 지으며 그들은 말하길 “〈내 이름은 김삼순〉을 봐야 해요”. 드라마가 시청률 40%를 훌쩍 넘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한국 드라마가 동남아를 휩쓰는 마당에 볼만한 드라마가 없으면 쓸쓸하기까지 하니 놀랄 일도 아니다. 새삼스럽게 드라마의 인기를 말하자는 건 아니고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동명의 원작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한때 원작소설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드라마의 후반부에는 삼순이가 언급한 미하엘 엔데의 『모모』가 화제가 되며 뜬금 없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니 이야기 거리가 되고도 남는다.

최근 소설의 드라마화가 빈번하다. 물론 반대로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하고 소설로 다시 출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상을 한정하여 2~30대 여성에게 인기 있는 드라마는 만화나 원작 소설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지수현의 『내 이름은 김삼순』, 현고은의 『1%의 어떤 것』, 지수현의 『열여덟 스물아홉』(이상, 눈과마음), 한수영의 『단팥빵』(현대문화센타) 등은 모두 소설로 먼저 발표되고 나서 드라마로 만들어진 경우다. 드라마가 성공할 경우 책의 판매는 가파르게 상승한다. 2004년 출판된 『내 이름은 김삼순』이 대표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MBC-TV는 지수현의 다른 소설 판권도 모두 계약했다고 하고, 후속작도 선보일 예정이라니 소설을 드라마로 만나는 일은 당분간 이어질 듯하다. 드라마의 인기이유를 밝히는 일이야 너니없이 하고 있으니, 원작 소설 이야기를 좀 해보자. 왜 우리 드라마는 『내 이름은 김삼순』같은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는 걸까.

### 보수적인 가치관을 담은 로맨스 소설

『내 이름은 김삼순』은 로맨스 소설이다. 로맨스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을 알고 싶다면 원작소설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드라마는 아직 방영중이라 원작과 결론이 비슷할지는 모르겠다). 소설은 일년 전 실연을 당하고 절망에 빠졌던 김삼순이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장도영(드라마 속의 삼식이)과 연약식을 치르는 것으로 끝난다. 기필코 봄의 신부가 되겠다는 삼순이의 고집으로 결혼을 앞두고 연약식을 치른다는 설정이다. 분홍색 한복을 입고 머리에 꽃까지 단 삼순의 모습은 영락없는 새색시다. 이 자리에서 삼순은 유치원 원아복을 입은 딸의 모습을 상상하니 더할 나위 없는 해피엔딩이다. 드라마의 결말을 앞두고 오랜만에 만나는 씩씩하고 건강한 여주인공이 제발 그렇고 그런 통속적인 사랑과 관습에 만족하지 말기를 바라는 일부 평자들의 소망을 생각한다면 원작의 결말은 너무 뻘하다. 그리고 이렇게 뻘하게 끝나는 것이 로맨스 소설이다. 여자가 쓰고 여자들의 사랑과 결혼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여자들이 읽는 로맨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피엔딩을 저버리지 않는 일이다. 남녀가 만나고 결혼하여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마침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로맨스라는 장르의 문법이 그렇다. 장르 소설이란 사건의 내면적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패턴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그 전개과정을 중시한다. 인물의 갈등과 성장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해결, 즉 엔딩에 목숨을 거는 것이 장르의 조건이다. 물론 장르 내에서도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지만 장르소설의 문법이란 그동안 소설을 즐겨온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 무의식의 결과다. 독자의 욕망 또는 갈증의 결과물인 셈이다. 여기서 로맨스 소설의 두 번째 법칙이 나오는데 소설의 중심은 사랑보다는 결혼이다. 로맨스 소설의 주 독자란 20대



왼쪽 ·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한 장면  
오른쪽 · 『소퍼 홀릭』  
(황금부영이 출판, 소피킨셀라 지음)

후반에서 30대 전반의 여성으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결혼이다. 그 나이 또래라면 대개 아직 미혼이거나 혹은 결혼한 기혼여성일 터인데 그들에게 결혼이란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삶의 선택이고 변화다. 그리고 이왕이면 자신의 결혼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간직한 욕망과 갈증을 충족시키자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반면 아직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이른 10대 전후나 결혼생활이 오래되어 이제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 선언을 시작하는 4~50대 여성의 욕구와는 다르다. 10대를 대상으로 한 하이틴 로맨스와 로맨스 소설은 그래서 다르다. 따라서 대개의 로맨스 소설은 그 시대를 사는 여성이 지닌 보수적 결혼관과 성 윤리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소비태도를 반영한다. 국내 로맨스 소설은 미국에서 수입된 할리퀸 문고와 장편 로맨스 소설을 따라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분기점을 맞이한 것은 1990년대 말 창작로맨스 소설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우리 장르소설이 대개 그러하듯 창작로맨스 소설 역시 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탄생했다. 지수현의 로맨스 소설 역시 모두 온라인에서 연재된 소설들이다. 『내 이름은 김삼순』도 2004년 1월에 온라인 연재를 시작하여 연재가 끝나자 책으로 묶여 나왔다. 인터넷 소설 작가들은 수용자에서 창작자로 나아간 이들이다. 때

문에 최근 창작 로맨스 소설은 과거와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 동시대 여성 이전에 나의 이야기

예컨대 모두 온라인에서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비슷하다. 어릴 때부터 잦은 이사와 전학 때문에 친구 없이 혼자서 이야기를 짓고 상상하기로 시간을 보내던 이들이 인터넷 소설 창작 게시판을 친구 삼아 창작을 시작한다. 혼자서 즐기던 상상 속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 함께 나누었다고 보면 된다. 귀여니가 제천에서 서울로 전학을 오며 외로워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다. 순수문학을 하는 작가 역시 자기 이야기를 소설로 털어내지만 인터넷 소설의 창작자들은 소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털어내는 일이 글쓰기의 본질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이 만들어낸 주인공은 보편적 자아라기보다는 작가 자신의 분신인 경우가 많다. 귀여니의 첫 책인 『그놈은 멋있었다』의 경우 백퍼센트 귀여니 자신의 경험을 담았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낸 소설이 인터넷에 올려지는 순간 소설은 공유되기 시작한다. 작가가 인물을 설정하고 배경을 만들고 이야기를 전개시키면 인터넷 사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소설에 개입하고 '인터랙티브' 하게 반응한다. 소설은 개인의 창작을 넘어 집단이 꾸는 백일몽으로 변하는 것이다. 후기에도 밝혔듯이 여주인공 삼순이가 하는 생각이나 실수담은 모두 작가가 실제로 겪은 일들이 많다. 심지어 드라마에도 소개되어 웃음을 자아낸 현금지급기 안에 갇혀버린 일조차 작가의 에피소드다. 삼순이의 생각이나 말투가 자연스러운 것은 작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말하자면 작가 '지수현'이 곧 '김삼순'인 것이다. 작가가 작품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는 주인공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수현이 작품 속에서 그리는 남자

## 브리짓존스의 일기

### 열정과 애정

BRIDGET JONES THE EDGE OF MESS  
 브리짓 존스의 일기: 열정과 애정  
 원작: 험프리 윙그필드 윙그필드, 2001년 출판 | 원역: 김수현, 2003년 출판 | 원역: 김수현, 2003년 출판 | 원역: 김수현, 2003년 출판  
 원역: 김수현, 2003년 출판 | 원역: 김수현, 2003년 출판 | 원역: 김수현, 2003년 출판 | 원역: 김수현, 2003년 출판



〈브리짓 존스의 일기〉 포스터

는 지금까지 정형화되어 있는 편이다. 상처를 지닌 남자 그래서 때로는 슬퍼 보이지만 강단 있고 무엇보다 잘 생겼다. 반면 여자는 대부분 푼수기 많은 평범한 인물이다. 〈내 이름은 김삼순〉은 주인공이 뚱뚱하고 씩씩하고 입이 거칠어 화제가 되었지만, 지수현의 소설에서는 늘 여자가 못났다. 지수현의 원작 『누나와 나, 혹은 그 녀석과 나』를 바탕으로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백설공주〉의 여주인공은 투포환 선수다. 뚱뚱하고 못생겼고 연애도 해 본적이 없다. 반면 그 녀석은 성격 나쁘고 매너 없지만 잘 생겼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로맨스 소설은 몇 가지 공통점이 더 있다. 인터넷 소설들이 초창기에 유머계 시판에 연재되었던 속성 때문인지 설정이 코믹하다. 최근 들어 로맨스 소설은 순정만화와 트렌디 드라마의 감수성을 혼재하고 있다. 할리퀸 문고와 인터넷 게시판과


90년대 중반 페미니즘 소설의 유행이래 한국 소설의 여성화가 문제가 될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여성을 위한 대중 소설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브리짓 존스의 일기』나 『쇼퍼 홀릭』처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을 대변할 소설이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순정만화와 트렌디 드라마적인 요소가 복합된 상태다.

### 드라마가 떠나 소설이 팔려

그러나 몇몇 로맨스 소설이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판매가 성공했지만 과연 로맨스 소설이 자리 매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맨스에 관한 오래된 선입관이 강하게 작용하는데다가 작가군도 빈약하다. 출판사가 함량 미달의 책들을 마구 쏟아내 시장을 축소시키기도 한다. 드라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판매 성적도 그다지 좋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로맨스 소설 역시 이야기라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드라마는 소설보다 영리하다. 구성과 아이디어와 캐릭터는 가져오지만 훨씬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소설보다 훨씬 일상적이고 사적이고 자질구레한 상황과 대사를 만든다. 어머니가 뭘 하시느냐 질문에 삼순이는 “시장에서 일수를 사알짝 놓고 계십니다” 라고 말할 줄 안다.

아무리 봐도 원작보다 드라마가 한 수 위인 것은 분명한데 왜 드라마는 원작소설을 찾아다닐까. 이윤기 선생의 말처럼 이미지 문화는 결코 3천년 동안 계승·발

진시킨 문학 이상의 것을 하루아침에 만들어 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로맨스 소설이 드라마를 즐기는 2~30대 여성의 보편적인 욕구를 잘 담아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90년대 중반 페미니즘 소설의 유행이래 한국 소설의 여성화가 문제가 될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여성을 위한 대중 소설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도 『브리짓 존스의 일기』나 『쇼퍼 홀릭』처럼 산업화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대변할 소설이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연애소설을 쓰는 작가조차 없는 우리 전통에 비추어 보자면 왜 여성소설의 빈자리에 드라마 소설이자 인터넷 소설이자 로맨스 소설이 있는지 혹은 일본 소설만 가득한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영화를 전제로 소설을 쓴다 해도 과연 아닌 마이클 클라이트, 존 그리샴, 스티븐 킹을 들지 않더라도 산업화된 영상문화는 소설이 필요하며, 소설과 영상의 가로지르기는 한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드라마가 떠나 소설이 뜨는 건 소설에게도 드라마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다. 바라건대 로맨스 소설아, 소설다워져라. 



### 공연, 전시, 문화예술 관련 행사 자료를 보내주세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월간 『문화예술』과 연간 『문예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간 『문화예술』의 '문화달력'은 공연, 전시,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화달력'에 실리는 내용은 문화예술단체(개인)에서 보내주시는 자료들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예연감』의 분야별 문화예술 활동의 기초 자료로 쓰여집니다. 보다 내실 있는 발간물로 거듭나려 노력하고 있는 저희 잡지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공연, 전시, 문화행사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조 바랍니다.

- 보내주실 자료    문화예술단체(개인)의 공연, 전시, 문화예술관련 행사의 보도자료 및 사진자료
- 보내주실 곳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출판미디어사업팀 월간 『문화예술』 『문예연감』 담당자 앞
-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번지
- 전화번호          02-760-4568
- E-mail             magazine@kcaf.or.kr